

제 1 교시

국어 영역

1

[1~2]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인상과 화가 중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청중의 반응을 살핀 후) 네, 생각나는 사람이 별로 없군요. 이번 주말에 우리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관람할 예정인 『모네 특별전』의 주인공인 모네가 바로 대표적인 인상과 화가입니다. 클로드 모네는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화가입니다. 모네는 관념적인 자연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인식한 자연을 많이 그렸는데, 빛에 따라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연작으로 그린 화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말에 여러분들이 모네의 그림을 감상할 때 도움이 되도록 그의 작품 세계를 소개할까 합니다.

(화면을 보여 주며) 이 그림은 모네의 작품 중 하나인 <인상, 해돋이>입니다. 모네는 강 위로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을 포착하여 하늘과 강물, 강 위의 배들을 모두 붉게 표현했는데, 모네가 이러한 순간을 포착할 수 있었던 것은 사진의 발명 덕분입니다. 모네는 빛으로 인해 변화되는 순간을 포착함으로써, 이전의 미술가들이 포착할 수 없었던 순간을 화폭에 담는 데 성공했습니다. 모네는 이 그림을 무명미술가 협회전에 출품했는데, 외관상 마무리가 덜 된 것처럼 보여서 당시 평론가들로부터 미완성의 작품이라고 비웃음을 샀습니다. 특히 평론가 루이 르루아는 이 그림의 제목을 차용하여 무명미술가 협회전을 ‘인상주의자들의 전시회’라고 조롱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비평가들은 모네를 인상주의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네는 이러한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화면을 전환하며) 이 그림은 모네의 대표작인 <수련>입니다. 이 그림은 그가 평생 추구한 빛과 색채의 철학이 집약된 그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같은 수련이라도 아침, 점심, 해가 질 때 등 시간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모습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빛의 화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9세기 이전의 사실주의 화가들과 달리 그는 사물에는 고유색이 없고 우리가 보는 것은 사물의 표면에 반사된 빛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오로지 사물의 표면에 반사된 빛을 포착하여 화폭에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모네는 빛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해 가는 사물의 인상을 표현하기 위해 ‘색채 분할법’이라는 특이한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색채 분할법이란, 물감을 팔레트에서 직접 혼합하여 칠하지 않고 화폭 위에 나란히 칠해 착시 현상을 주는 표현 기법입니다. 따라서 모네의 미술품을 감상할 때는 너무 가까운 거리보다 그림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의 제 발표가 『모네 특별전』을 관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발표에 반영된 학생의 발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시각 자료를 제시해야겠어.
- ②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소한 용어의 개념을 설명해야겠어.
- ③ 청중의 배경 지식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던지며 시작해야겠어.
- ④ 청중이 이해하기 쉽도록 핵심 정보를 다른 상황에 빗대어 설명해야겠어.
- ⑤ 청중이 발표 내용에 주목할 수 있도록 발표의 목적을 분명히 밝혀야겠어.

2. 다음은 발표를 들은 학생이 작성한 메모이다. 발표 내용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상과 화가 ‘모네’]

- 모네는 동일한 대상이 빛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인상을 화폭에 담으려고 노력함. ㉠
- 모네는 이전의 화가들이 활용한 사진 기술을 바탕으로 자연의 빛깔을 연구함. ㉡
- 모네가 그린 <인상, 해돋이>는 당시의 비평가들로부터 혹평을 받음. ㉢
- 모네는 사실주의 화가들과 달리 사물이 고유한 색을 지니고 있음을 부정함. ㉤
- 모네는 착시 효과를 이용하여 대상의 인상을 드러내 고자 함. ㉥

- ① ㉠ ② ㉡ ③ ㉢ ④ ㉤ ⑤ ㉥

[3~5] 다음은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우리 학교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재능 기부 봉사활동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능 기부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참가 신청서와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당 선생님께서 서류를 심사하여 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능 기부 봉사활동에 참여하려는 학생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선발 방식을 바꿔 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기존 방식인 ㉠ 서류 심사 방식 대신 새로운 방식으로 ㉡ 심층 면접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재능 기부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을 심층 면접 방식으로 선발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부터 입론해 주십시오.

찬성 1: 재능 기부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을 선발할 때 심층 면접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봉사활동 계획서를 보고 심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류 심사 방식은 계획서의 내용만 살펴보고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참가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재능을 지니고 있는지 정확히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서류 내용의 사실 여부를 심사자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우수한 재능을 지닌 학생들이 선발 과정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심층 면접 방식은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께서 면접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참가자의 재능이나 역량 등을 직접 검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재능을 지닌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해 주십시오.

반대 2: 심층 면접 방식이 참가자의 개인적 재능이나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심층 면접 방식은 면접 과정에서 면접관이 직접 학생을 대면하기 때문에 면접관의 주관의 개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 그렇게 되면 평가의 신뢰성이 떨어져 학생들의 불만이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찬성 1: 물론 면접 과정에서 면접관의 견해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기존의 서류 심사 방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심층 면접 방식은 참가자의 재능을 면접 과정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다른 학생과 비교할 수 있어서 더 우수한 재능을 지닌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입론해 주십시오.

반대 1: 저는 심층 면접 방식으로 선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심층 면접 방식은 심사를 맡은 면접관과 대면하여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이므로 말을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긴장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말을 논리적으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면접 경험이 부족한 저학년 학생들은 고학년 학생들보다 면접에 약하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서류 심사 방식은 담당 부서에서 마련한 타당한 평가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해 주십시오.

찬성 2: 방금 서류 심사 방식의 평가 기준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학생회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가 기준 중에 재능 기부 봉사활동 참가자를 선발하는 것과 관련 없는 내용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서류 심사의 평가 기준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B]

반대 1: 평가 기준의 일부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대체할 다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위 토론의 ‘입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찬성 1’은 새로운 방식의 긍정적 측면을 근거로 삼아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 ② ‘찬성 1’은 논제와 관련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③ ‘반대 1’은 논제와 관련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있다.
- ④ ‘반대 1’은 기존 방식의 장점을 제시한 후 새로운 방식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⑤ ‘반대 1’은 상대측의 견해를 일부 수용하며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을 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4.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는 상대측 발언의 일부를 언급하고, 새로운 방식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② [A]는 상대측 발언 내용 중 모호한 표현을 지적하며, 정확하게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③ [B]는 상대측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 ④ [B]는 상대측 발언 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새로운 방식의 장점을 강조하고 있다.
- ⑤ [A]와 [B] 모두 상대측 자료 내용의 정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자료의 출처를 밝혀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5. ㉠과 ㉡에 관한 토론의 내용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찬성 측은 새로운 방식이 참가자의 재능을 직접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을 옹호하고 있다.
- ② 찬성 측은 기존 방식이 서류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을 반대하고 있다.
- ③ 반대 측은 기존 방식의 평가 기준이 타당함을 내세워서 ㉠이 적절한 선발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④ 반대 측은 새로운 방식이 학년에 따라 유불리가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 ⑤ 반대 측은 기존 방식이 다양한 분야의 재능을 지닌 학생을 효과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을 옹호하고 있다.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문 상황

나는 얼마 전에 안도현 시인의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를 감명 깊게 읽었는데, 평소 시를 멀리하는 친구들에게 이 시를 읽고 깨달은 바를 전하고자 글을 쓰기로 하였다.

(나)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었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의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딱딱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 안도현, 「스며드는 것」 —

(다) 초고

어머니께서는 간장게장을 무척 좋아하신다. 어머니의 식성을 닮아서 나 역시 간장게장이 식탁에 오르면 밥 한 그릇을 푹딱 해치운다. 남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나고 물으면, 주저 없이 간장게장이라고 대답할 정도이다. ㉠ 그리고 며칠 전 친구가 생일 선물로 준 안도현 시인의 시집에서 「스며드는 것」을 읽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왜냐하면 나는 간장게장을 단순히 먹을 거리로만 ㉡ 생각되었지만 시인은 간장게장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발견하고 이를 시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나는 평소에 시를 공부할 때, 어떻게 감상해야 하는지 난감할 때가 많았다. 시인들은 고상한 단어로 내가 잘 모르는 어떤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로만 생각했다. 그래서지 나는 시를 감상하는 것이 늘 ㉢ 막연하고 어려웠다. 그런데 이 시는 평범한 단어를 사용하여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익숙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감동을 ㉣ 주었다. 나는 ‘왜 이 시가 감동적일까?’라는 의문이 들었고, 몇 번 더 꼼꼼하게 시를 읽어 보면서 그 나름의 이유를 고민해 보았다. 그 결과 시인의 ‘관찰력’과 ‘발상의 전환’이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주된 이유라는 생각이 들었다.

간장게장은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는 먹을거리이지만, 음식을 만들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떻게 식탁에 오르는지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런데 시인은 간장게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세심하게 관찰한 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다. 또한 간장게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사람이 아닌 ‘꽃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작품에 ㉤ 새로운 참신성을 더했다.

이 시를 통해, 나는 무심히 지나치던 일상을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상을 전환하여 새로운 의미를 담아내면 좋은 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시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결국 ‘시’란 _____
[A]

6. (가)와 (다)를 통해 알 수 있는 작문의 특성으로만 묶은 것은?

ㄱ.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표현하는 활동이다.
ㄴ. 일상의 경험과 관련지어 의미를 발견하는 활동이다.
ㄷ. 문제 상황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활동이다.
ㄹ. 전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는 활동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A]에 들어갈 내용을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 건>

○ 글의 흐름을 고려하되, 설의적 표현으로 마무리할 것.
○ (나)의 시어나 시구를 활용할 것.

① 삶의 고통과 아픔을 천천히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② 우리가 꿈틀대고 버둥거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스며 있는 것이 아닐까.
③ 꽃게가 알을 껴안듯이 시인이 동경하는 미지의 세계를 내면 화하는 것은 아닐까.
④ 일상어로 삶을 재현해 내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삶의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⑤ 울컥울컥 쏟아지는 감정들을 담담히 추스르는 과정에서 인간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구나.

8. (다)의 ㉠~㉤에 대한 점검 결과와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문장의 연결이 어색하므로 ‘그런데’로 고친다.
② ㉡: 피동 표현으로 잘못 썼으므로 ‘생각했지만’으로 고친다.
③ ㉢: 문맥상 부적절한 단어이므로 ‘막연하고’로 고친다.
④ ㉣: 주술 호응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받았다’로 고친다.
⑤ ㉤: 의미가 중복되므로 ‘새로운’을 삭제한다.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는 ‘한낮의 소식통’을 소개하기 위해 학생 자치회에서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작성한 글이고, (나)는 (가)를 읽은 학생이 ‘한낮의 소식통’에 보내기 위해 쓴 글이다.

(가)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한낮의 소식통’에 대해 소개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한낮의 소식통’은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 방송반 함에 넣어주면, 점심시간에 학교 방송을 통하여 그 이야기를 전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치 사연을 소개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처럼 우리들의 이야기가 방송반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죠.

학교에 대한 건의 사항이나 친구와 나눈 우정 등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든 보내 주세요. 그러면 학생 자치회와 방송반에서 선별하여 여러분의 점심시간을 알차게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날 방송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건의 사항은 그 결과도 공지하여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는 데 ‘한낮의 소식통’이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반갑습니다. 저는 2학년 1반 김□□입니다.

저는 학생 여러분께 건의할 내용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 환기를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이 되면 에어컨을 켜다고 문을 닫고, 겨울에는 춥다고 문을 닫고, 봄이면 황사 때문에 문을 닫고, 가을에는 일교차가 심하여 감기에 걸린다고 문을 닫습니다. 일 년 내내 문을 꼭꼭 닫고 교실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실내 공기의 질이 안 좋아서 학생들의 호흡기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도 제 짝은 목이 따갑다며 온종일 따뜻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따뜻한 물을 마신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왜 교실 환기를 하지 않는가?’와 관련한 ㉠ 설문 조사를 하였습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 대부분이 환기를 하지 않는 이유로 ‘내가 하기는 귀찮아서’를 들었고, ㉢ 일부는 ‘교실 밖의 공기가 더 더러워서’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기는 귀찮아서’라고 답변한 학생 중의 90%는 ㉣ 환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귀찮다고 환기를 하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 실외 공기가 더 더럽다는 생각은 잘못된 판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내 환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 구성원의 협의가 바탕이 된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반마다 환기를 담당하는 학생을 정해서 조레 시간, 점심시간, 종레 시간처럼 일정한 시간에 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환기를 하면 당장은 잠깐 덥거나 추울 수는 있지만,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교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교실을 환기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9. 다음은 (가)를 쓰기 전에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다. (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한낮의 소식통’이 방송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알려야겠어.
- ② ‘한낮의 소식통’에 보낼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 언급해야겠어.
- ③ ‘한낮의 소식통’의 운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제시해야겠어.
- ④ ‘한낮의 소식통’을 통해 소개되는 이야기들을 선정하는 구체적 기준에 대해 말해줘야겠어.
- ⑤ ‘한낮의 소식통’에서 소개된 이야기들을 방송 후에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야겠어.

10. <보기>는 (나)를 작성할 때 활용한 자료이다. <보기>에 맞추어 (나)의 ㉠~㉥을 수정·보완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자료1]

우리 학교 교지 편집부에서 1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왜 교실 환기를 하지 않는가?’를 주제로 설문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80%가 ‘내가 하기는 귀찮아서’라고 대답하였고, ‘교실 밖의 공기가 더 더러워서’라고 대답한 학생들도 15%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기는 귀찮아서’라고 대답한 학생 중의 90%는 ‘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교지의 일부 —

[자료2]

흔히 실외 공기가 실내 공기보다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실외 공기보다 실내 공기의 오염 농도가 더 높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생활을 위해 주기적인 실내 환기가 꼭 필요합니다.

— ◇◇대 환경공학과 김△△ 교수 인터뷰 —

- ① ㉠은 설문 조사의 주체를 ‘나’라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자료1]을 활용하여 ‘교지 편집부의 설문 조사 결과를 보았습니다.’로 수정한다.
- ② ㉡과 ㉢은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자료1]을 활용하여 ㉡은 ‘학생들 중 80%가’로, ㉢은 ‘15%의 학생들은’으로 수정한다.
- ③ ㉣은 [자료1]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환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로 수정한다.
- ④ ㉤에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2]를 활용하여 ‘◇◇대 환경공학과 김△△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이라는 말을 추가한다.
- ⑤ ㉥은 문맥을 고려할 때, [자료2]의 내용과 결부하여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개인의 자발적이고 주기적인 실내 환기가 필요합니다.’로 수정한다.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형태소’는 단어를 분석한 단위이며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다. 형태소는 뜻의 성격에 따라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눌 수 있고, 자립성의 여부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1) 사과를 먹었다.

(1)은 ‘사과, 를, 먹었다’의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사과’의 경우, 단어를 나누면 ‘사’와 ‘과’로 쪼개어지는데 각각은 뜻이 없다. 따라서 ‘사과’는 뜻을 가진 단위 중 가장 작은 단위이므로 하나의 형태소가 된다.

‘먹었다’의 경우, ‘먹-’의 자리에 ‘꺾-’을 넣는다면 단어의 뜻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먹었다’라는 단어가 ‘음식 등을 입을 거쳐 배 속으로 들여보내다.’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먹-’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었-’ 자리에 ‘-는-’을 넣으면 먹는 행위가 이루어진 때가 ‘현재’로 달라지므로 ‘-었-’이 ‘과거’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다’ 자리에 ‘-고’를 넣으면 ‘먹었고’가 되어서 그 뒤에 문장이 이어짐을 나타내므로 ‘-다’가 ‘문장 종결’의 뜻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 단어 ‘먹었다’는 ‘먹-’, ‘-었-’, ‘-다’라는 세 개의 형태소로 분석할 수 있다.

이 때 ‘-었-’이나 ‘-다’는 ‘먹-’과 달리 문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태소를 형식 형태소라고 한다. 형식 형태소에는 ‘-었-’, ‘-다’와 같은 어미뿐만 아니라 ‘를’과 같은 조사, 어근의 앞뒤에 붙어 뜻을 더하거나 단어의 성질을 바꾸는 접사가 있다. 반면에 ‘사과’, ‘먹-’처럼 구체적인 대상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실질적인 뜻을 지닌 형태소를 실질 형태소라고 한다.

(1)의 형태소 중 ‘사과’는 다른 말에 기대지 않고 자립해서 쓰일 수 있지만, ‘를’은 ‘사과’에 붙어야 쓰일 수 있고, ‘먹-’, ‘-었-’, ‘-다’는 서로 기대어야 문장에서 쓰일 수 있다. ‘사과’처럼 자립하여 쓸 수 있는 형태소를 자립 형태소라고 하고, ‘를’, ‘먹-’, ‘-었-’, ‘-다’처럼 다른 말에 기대어 사용되는 형태소를 의존 형태소라고 한다.

이상의 설명을 바탕으로 (1)의 형태소를 분석하면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사과 / 를 / 먹 / 었 / 다

실질	형식	실질	형식	형식
자립	의존	의존	의존	의존

1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형태소를 더 작게 쪼개면 뜻이 사라진다.
- ② 의존 형태소만으로도 단어를 형성할 수 있다.
- ③ 형태소 하나가 단어 하나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 ④ 형태소 중에는 문법적인 기능만 수행하는 것도 있다.
- ⑤ 실질적인 뜻을 지닌 형태소는 모두 자립적인 성격을 지닌다.

12.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그가 풀밭을 맨발로 뒀다.

- ① ‘풀밭’은 ‘풀’ 대신 ‘꽃’을 넣거나 ‘밭’ 대신 ‘빛’을 넣으면 단어의 뜻이 달라지므로 ‘풀’과 ‘밭’으로 나눌 수 있다.
- ② ‘맨발’의 ‘맨-’은 ‘밭’과 결합하여 뜻을 더하는 기능을 하므로 하나의 형태소로 볼 수 있다.
- ③ ‘뒀다’의 ‘-ㄴ-’ 대신에 ‘-었-’을 넣으면 동작 시간이 현재에서 과거로 바뀌므로 ‘-ㄴ-’을 하나의 형태소로 보아야 한다.
- ④ 다른 말에 기대지 않고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의 개수는 모두 4개이다.
- ⑤ 실질적인 뜻은 없고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태소의 개수는 모두 5개이다.

13. <보기 1>을 활용하여 <보기 2>의 음운 변동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1> ————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입술소리	잇몸소리	센입천장소리	여린입천장소리
파열음	ㅂ, ㅍ	ㄷ, ㅌ		ㄱ, ㅋ
파찰음			ㅈ, ㅊ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 <보기 2> ————
㉠ 국민→[궁민] ㉡ 물난리→[물랄리] ㉢ 굳이→[구지]

- ① ㉠은 첫음절 끝의 파열음이 뒤의 자음과 결합하여 유음으로 바뀌었다.
- ② ㉡은 유음이 앞뒤 비음의 영향을 받아 비음으로 바뀌었다.
- ㉢은 여린입천장소리가 뒤의 자음을 닮아 센입천장소리로 바뀌었다.
- ④ ㉠과 ㉡에서 변동된 음운은 조음 방법이 변하였다.
- ⑤ ㉡과 ㉢에서 변동된 음운은 조음 위치가 변하였다.

14. <보기>의 수업 상황에서, 밑줄 친 물음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번 시간에는 문장을 구성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성분인 주성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습니다. 주어는 문장에서 동작 또는 상태나 성질의 주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 따위를 풀이하는 기능을 하는 성분입니다. 서술어의 동작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을 목적어라고 하고, 서술어 ‘되다, 아니다’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 중에서 주어를 제외하고 조사 ‘이/가’가 붙은 것을 보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의 주성분에 대해 알아보까요?

- ㄱ. 철수의 동생이 사진을 찍었다.
ㄴ. 언니는 올해 대학생이 되었다.

- ① ㄱ의 ‘찍었다’는 ‘동생’의 동작을 풀이하는 서술어입니다.
② ㄴ의 ‘올해’는 ‘되었다’가 꼭 필요로 하므로 주성분입니다.
③ ㄱ에는 목적어가 있지만, ㄴ에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④ ㄱ과 ㄴ에는 주어가 하나씩 있습니다.
⑤ ㄱ과 ㄴ에는 주성분의 종류가 세 가지씩 있습니다.

15.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과 ㉡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중세 국어 의문문의 종결어미는 인칭의 종류와 물음말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주어가 1, 3인칭일 경우, 물음말이 있는 의문문에는 ‘-ㄴ고’, ‘-ㄴ고’와 같은 ‘오’형 어미가 사용되었고, 물음말이 없는 의문문에는 ‘-ㄴ가’, ‘-ㄴ가’와 같은 ‘아’형 어미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주어가 2인칭일 경우, 물음말의 유무와 상관없이 ‘-ㄴ다’가 사용되었다.

- 부테 世間에 ㉠
(부처가 세간에 나신 것인가?)
- 네 뉘손디 글 ㉡
(너는 누구에게서 글을 배웠는가?)
- 어느 사르미 少微星이 잇다 니르던고
(어떤 사람이 소미성이 있다고 말하던가?)

- | | | |
|---|-------|------|
| | ㉠ | ㉡ |
| ① | 나샤미신가 | 빅혼다 |
| ② | 나샤미신가 | 빅호느고 |
| ③ | 나샤미신고 | 빅혼다 |
| ④ | 나샤미신다 | 빅호느고 |
| ⑤ | 나샤미신다 | 빅호느가 |

-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방’은 몸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다. 또한 지방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는데,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1g당 4kcal의 열량을 내는 데 비해 지방은 9kcal의 열량을 낸다. ‘체지방’은 섭취한 영양분 중 쓰고 남은 영양분을 지방의 형태로 몸 안에 축적해 놓은 것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체지방은 지방 조직을 ㉠ 이루는 지방세포에 축적되며, 피부 밑에 위치하는 피하지방과 내장 기관 주위에 위치하는 내장지방으로 나뉜다. 이 체지방은 내장 보호와 체온 조절 기능을 할 뿐 아니라 필요시 분해되어 에너지를 만들기도 한다.

체지방이 과잉 축적된 상태인 비만은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지방을 조절해야 한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지수가 체중에서 체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인 ‘체지방률’이다. 체지방률은 남성의 경우 15~20%, 여성의 경우 20~25%를 표준으로 삼고, 남성은 25% 이상, 여성은 30% 이상을 비만으로 판정한다.

비만의 판정과 관련하여 흔히 쓰이는 ‘체질량지수(BMI)’는 신장과 체중을 이용한 여러 체격지수 중에서 체지방과 가장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BMI는 체중(kg)을 신장의 제곱(m²)으로 나누어 구하는데, 18.5~22.9이면 정상 체중, 23 이상이면 과체중, 25 이상이면 경도 비만, 30 이상이면 고도 비만으로 판정한다. 그러나 운동선수처럼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체지방률이 적어도 상대적으로 BMI가 높을 수 있다. 이처럼 BMI는 체지방률에 대한 추정만 가능할 뿐 체지방률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다면 BMI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체지방 측정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체지방을 측정하는 방법 중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 ‘피부두겹법’이 있다. 이 방법은 살을 캘리퍼스*로 집어서 피하지방의 두께를 잴 후 통계 공식에 넣어 체지방을 산출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측정 부위나 측정자의 숙련도에 따라 측정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내장지방을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 ‘수중체중법’은 신체를 물에 완전히 잠근 후 수중 체중을 측정하고 물 밖 체중과 비교하여 체지방률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체중은 체지방과 체지방*의 합이다. 체지방은 밀도가 0.9g/cm³로 물에 뜨고, 체지방은 밀도가 1.1g/cm³로 물보다 높아 가라앉는다. 그러므로 체지방률이 많을수록 수중 체중이 줄어들어 물 밖 체중과의 차이가 커진다. 이 차이를 이용하여 체지방률을 얻어낼 수 있다. 이 방법은 체지방률을 구하는 표준 방법으로 쓰일 정도로 이론적으로는 정확성이 높다. 하지만 신체 부위별 체지방의 구성이나 비율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그리고 체내 공기량에 따라 측정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며,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점 등으로 인해 연구 목적 외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체지방 측정기를 이용하여 체지방을 측정할 수도 있는데, 이때 ‘생체 전기저항 분석법(BIA)’이 활용된다. 이 방법은 일정한 신체 부위에 접촉된 전극을 통해 체내에 미약한 전류를 흘려보내 전기저항을 알아봄으로써 체지방률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전류가 흘러갈 때 이를 방해하는 힘을 저항 또는 전기저항이라고 하는데, 인체 내의 수분은 전기가 잘 통하므로 전기저항이 매우 작다. 근육세포는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근육

이 많은 곳에서는 전기저항이 비교적 작게 나타난다. 반면 지방세포는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아 지방이 많은 곳에서는 전기저항이 크게 나타난다. 전류가 신체를 통과해서 나온 값이 처음 흘려보낸 값에서 얼마나 손실되었는지 확인하면 신체의 전기저항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성질을 이용하면 체지방량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단일 주파수의 전류로는 세포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서 다주파수 측정 방식을 사용한다. 10kHz 이하의 저주파 전류는 세포막을 넘어서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세포 외 공간에서만 흐를 수 있다. 세포 외 공간은 수분이 대부분이어서 전기저항이 매우 작다. 하지만 50kHz 이상의 고주파 전류는 세포 외 공간과 세포 내 공간을 구별하지 않고 흐른다. 다양한 주파수의 전류를 보내면 세포의 수나 세포 내외 수분의 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신체의 구성 성분 비율까지 얻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전기저항 수치는 체내 수분의 양에 절대적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음료 섭취나 운동 등으로 체내 수분의 양에 변화가 생기면 전기저항 수치가 변하여 체지방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체지방 측정기를 사용할 때에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조건에서 측정해야 한다.

* 캘리퍼스: 자로 재기 힘든 물체의 두께, 지름 따위를 재는 도구.
* 체지방: 근육과 뼈, 수분 등 지방 이외의 신체 구성성분.

1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체지방을 정의하는 상반된 관점을 대비하고 있다.
 - ② 체지방이 수행하는 역할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다.
 - ③ 체지방을 조절하는 방법들의 장단점을 소개하고 있다.
 - ④ 체지방을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과 그 특성을 밝히고 있다.
 - ⑤ 체지방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다양한 근거로 비판하고 있다.

17.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에 비해 열량이 높다.
 - ② 체지방량은 판정 기준치가 성별에 따라 다르다.
 - ③ 체지방은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으로 나눌 수 있다.
 - ④ 비만은 인체에 체지방이 과잉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 ⑤ 체중은 체지방과 체지방의 전기저항 차이를 통해 산출한다.

18. ㉠과 ㉡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조건에서 측정해야 한다.
 - ② 내장지방을 별도로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 ③ 측정의 정확성이 높아 표준 측정 방법이 될 수 있다.
 - ④ 연구 목적 외에도 실제 측정 방법으로 널리 활용된다.
 - ⑤ 측정자의 숙련도와 상관없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19. 윗글을 읽고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아래의 측정값은 체중이 60kg인 A, B 두 남성에게서 얻은 것이다.

측정 대상	BMI	체지방량(kg)
A	24.2	16.2
B	20.4	13.2

- ① 신장이 더 작은 사람은 A이다.
 - ② 체지방량이 더 많은 사람은 B이다.
 - ③ 수중 체중이 더 나가는 사람은 A이다.
 - ④ BMI만 볼 때 정상 체중인 사람은 B이다.
 - ⑤ 체지방률로만 볼 때 비만인 사람은 A이다.
2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체지방 측정기에서 인체 내 전류의 흐름을 가정한 그림이다. a는 인체에 투입되는 특정 주파수의 전류를, b는 a가 지방과 근육세포 내외를 모두 통과한 후의 전류를 나타낸다. 그 외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 ① a는 50kHz 이상의 주파수를 가질 것이다.
- ② 지방보다 근육에서 ‘세포 내 저항’이 작게 나타날 것이다.
- ③ a만으로는 세포 내외의 수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을 것이다.
- ④ a가 흐를 때 ‘세포 내 저항’이 ‘세포 외 저항’보다 작게 나타날 것이다.
- ⑤ 땀을 많이 흘린 후 다시 측정하면 그 전보다 b의 값이 감소할 것이다.

21. ㉠과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성(構成)하는 ② 달성(達成)하는
 - ③ 양성(養成)하는 ④ 완성(完成)하는
 - ⑤ 합성(合成)하는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음성 나환자 수용소 ‘자유원’의 원생들은 원장 박성일의 비리를 폭로하고 처벌을 호소하지만, 오히려 박 원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희망원’의 부랑아들을 동원해 집단 폭행을 하는 등 양갓음한다. 이후 우중신 노인은 뜻을 같이하는 자유원 사람들과 함께 산속으로 들어가 ‘인간단지’라는 자신들만의 삶의 터전을 만들고자 한다.

그날도 자유원에서 몇 사람이 더 와 있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박성일 원장이 아주 노발대발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배은망덕한 놈들이라면서

“제 놈들이 이곳을 빠져나간다고 해서 어디 가 발을 붙일 수 있나 보자. 미구에 오도 가도 못하고 거리에서 굶어죽을 것이 뻔한데…….”

이것은 떠난 사람들에 대한 악담인 동시에, 한편 남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위협이기도 했다.

결국 —바로 그 이튿날 아침나절이었다. 면사무소 직원 두 사람과 파출소 순경 한 사람이 함께 그 괴상한 간판 —‘인간단지’를 찾아왔다.

“이곳 반장이 누구요?”

제일 나이 들어 보이는 한 친구가, 자기들의 신분을 밝히면서, 막사의 흙담을 쌓고 있는 한 패를 보고 물었다. 아무 데라도 애국반이라는 게 있는 듯이 말하는 걸 보아서 역시 면직원에 틀림 없었다.

“반장은 없소만 저 언덕 우로 가 보시오.”

일행은 두말 않고 그들이 가리키는 언덕 위—버딩 쪽으로 갔다.

㉠ 거기서는 수십 명의 음성 나환자들이 패를 나누어 밭을 일구고 있었다. 역시 같은 사람이 같은 소리를 했다.

“반장이란 건 없소만 무슨 일로 왔소?”

우중신 노인이 일동을 대표하듯 말했다.

찾아온 이유는 간단했다. ㉡ 뻔한 것이었다. — 왜 허가도 말지 않고 함부로 여기 들어왔느냐, 그것도 그렇거니와 이 아래 부락들이 발각 뒤집혀져서 면이랑 파출소로 몰려와 그냥 두지 않겠다고 야단들이니, 빨리 본래 있던 자유원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우중신 노인은 잠깐 생각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장 효과 있는 대답을 가려내기 위해서였다. 게다가, 암만해도 박성일 원장의 부추김을 받은 것 같은 — 말하자면 박 원장과 꼭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어서 노여움이 한결 더 했던 것이다.

“허가라니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우중신 노인은 결국 이렇게 되물었다.

“그야 관청의 허가지요.”

면서기의 대답도 통명스러워졌다.

“글쎄요. 관청하지만 관청도 하도 많으니 어느 관청인지? 면입니까, 파출소입니까, 아니면 군청? 도청? 어느 쪽입니까?”

“이 영감이 누굴 보고 따지는 거요?”

면서기는 결국 화를 버럭 냈다.

“따지는 기 아니라, 몰라서 묻는 거 아니오.”

“종게 타이를 때 알아서 하시오. 괜히…….”

파출소가 한 마디 거든다.

“글쎄요. 누가 덮어놓고 반대를 합니까. 순서를 아리기 달라는 거 아닙니까. 면이면 면이다, 군이면 군이라고.”

㉢ 어찌자는 건지 세 사람의 방문객은 서로 얼굴만 잠깐 쳐다보았다.

“이 늙은 것도 법률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니오만, 소위 헌법에 규정된 ‘거주의 자유’란 거 말입더. 집 없는 국민이 건축 허가가 필요치 않은 깊은 산중에 있는, 노는 나라 땅에 움집을 짓거나 거기서 살 때도 허가를 꼭 맡아야만 대는 건지 어떤지? 내 생각 같에서는 애기의 경우처럼 출생에는 허가가 필요치 않고, 낳은 후 신고만 하면 대듯이, 거주의 경우도 필요하다면 신고만 하면 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만 당신네들의 경우는 다르지 않소?”

역시 나이 든 면직원의 말이다.

“문당이니까? 그러나 여기 온 사람들은 모두 음성입니다. 나라에서 성한 사람과 아무 차별 대우도 하지 않는 그런 국민입니다.”

우중신 노인은 시종 침착한 태도를 보였다.

“아무튼 우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상부의 명령도 그렇고, 또 부근 주민들이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르니까요…….”

경찰은 경찰다운 소리를 했다. 면서기들보다 솔직한 데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그 날은, 결국 서로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도 타협도 없이 헤어졌다.

(중략)

2백여 명의 장정들이 백주에 꿩이며 삼, 몽둥이들을 들고 물이꾼처럼 몰려왔다. ㉣ 어느 얼굴을 보나 인간 백정이다!

5십 명 남짓한 음성 나환자들은 우선 손에 쥔 것 없이 그들의 천막 앞에 앉아 있었다.

부락민들은 천막을 죽 에워쌌다.

구장인지 뭔지 얼굴이 넓적하고 입이 메기처럼 커다란 사람이 겁에 질려 있는 듯한 음성 환자들을 보고 명령을 하듯 했다.

“여러 말 할 것도 들을 것도 없으니 곧 이곳을 떠나시오!”

목소리도 입따라 우렁찼다.

경기가투리가 일동을 대표해서 따지려 들었다. 그러나 그는 두 마디도 못하고 구장인 듯한 사내의 발길에 채어 넘어졌다.

환자들은 우쭐하려다 말고 천막 안을 돌아보았다.

흰 수염을 털털 떨며 우중신 노인이 예의 긴 지팡이를 짚고 경기가투리가 섰던 자리에 나타났다.

“자네 말마따나 여러 말 할 것 없네. 우릴 쫓아. 우선 나부터!”

우중신 노인은 누더기 같은 옷을 확 찢으며 뺨만 남은 가슴을 쭉 내밀었다.

㉤ 그러나 구장깨나 해먹을 만한 사람 같이 보이는 메기아가리에겐 그까짓 거리지들의 불평이나 위협 따위에 원눈도 깜짝할 필요가 없다.

“자네—? 이 자식이 머 이런 기 있노!”

메기아가리의 넓적한 손바닥이 우 노인의 얼굴을 물장스럽게 뺨다 갈겼다.

쓰러질 듯하다가 일어나는 우 노인의 수염에 피가 별정계 흘러내렸다. 우 노인의 지팡이가 상대방의 아랫배 짚을 지르자, 미처 닿기도 전에 또 한 부락민의 뺨이 그닥없이 우 노인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퍽... 하는 둔탁한 음향과 함께 쓰러진 우 노인의 눈은 금방 하얗게 뒤집혀졌다. 거의 순간적인 일이었다.

— 김정환, 「인간단지」 —

2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시대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작품 속 인물이 자신의 체험을 서술하여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사건 전개에 인과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④ 장면을 빈번하게 전환하여 사건 전개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⑤ 인물 간의 대화와 행동을 제시하여 문제 상황을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다.

2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새로 정착한 삶의 터전을 일구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② ㉡: 방문객들의 방문 목적이 충분히 짐작 가능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우 노인의 말에 대응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④ ㉣: 음성 나환자들을 쫓아내려는 부락민들의 인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⑤ ㉤: 예상치 못한 우 노인의 위협에 놀라서 당황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24. [A]의 발화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방문객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 ② 방문객들이 궁금해 하는 절차를 알려 주려는 것이다.
- ③ 방문객들의 요구가 타당하지 않음을 환기하려는 것이다.
- ④ 방문객들과 맞서서 싸울 의향이 없음을 전하려는 것이다.
- ⑤ 방문객들이 자신들에게 적극 동조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2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김정한 소설은 부조리한 현실의 폭력성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인간단지」에 드러나는 현실의 폭력성은 부당한 권력과 사회적 편견에 바탕을 둔다. 이러한 폭력성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은 기본적인 생활권과 삶의 의지를 짓밟히게 되고, 그 결과 사회적 약자들은 삶의 터전마저 잃게 된다. 이처럼 「인간단지」는 부당한 권력과 사회적 편견에 희생되는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보여준다.

- ① 박 원장이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부조리한 현실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② 우 노인 일행은 기본적인 생활권을 위해 저항하지만 삶의 터전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군.
- ③ 우 노인이 산속에 ‘인간단지’를 건설한 것은 부당한 권력의 행태를 세상에 알리려는 의도로 볼 수 있군.
- ④ 부락민들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 나환자들의 고통은 사회적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⑤ 면사무소 직원이 ‘인간단지’ 사람들을 자유원으로 되돌려 보내려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삶의 의지를 꺾으려는 것으로 볼 수 있군.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조선시대 시조 문학의 주된 향유 계층은 사대부들이었다. 그들은 ‘사(士)’로서 심성을 수양하고 ‘대부(大夫)’로서 관직에 나아가 정치 현실에 참여하는 것을 이상으로 여겼다. 세속적 현실 속에서 나라와 백성을 위한 이념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심성을 닦을 수 있는 자연을 동경했던 것이다. 이러한 의식의 양면성에 기반을 두고 시조 문학은 크게 강호가류(江湖歌類)와 오륜가류(五倫歌類)의 두 가지 경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A] 강호가류는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삶을 노래한 것으로, 시조 가운데 작품 수가 가장 많다. 강호가류가 크게 성행한 시기는 사회와 당쟁이 끊이질 않았던 16~17세기였다. 세상이 어지러워지자 정치적 이상을 실천하기 어려웠던 사대부들은 정치 현실을 떠나 자연으로 회귀하였다. 이때 사대부들이 지향했던 자연은 세속적 이익과 동떨어진 검소하고 청빈한 삶의 공간이자 안빈낙도(安貧樂道)의 공간이었다. 그 속에서 사대부들은 강호가류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이상적 조화를 추구하며 자신의 심성을 닦는 수기(修己)에 힘썼다.

[B] 한편, 오륜가류는 백성들에게 유교적 덕목인 오륜을 실생활 속에서 실천할 것을 권장하려는 목적으로 창작한 시조이다. 사대부들이 관직에 나아가면 남을 다스리는 치인(治人)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방편으로 오륜가류를 즐겨 지었던 것이다. 오륜가류는 쉬운 일상어를 활용하여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마땅히 행하거나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명령이나 청유 등의 어조로 노래하였다. 이처럼 오륜가류는 유교적 덕목인 인륜을 실천함으로써 인간과 인간이 이상적 조화를 이루고, 이를 통해 천하가 평화로운 상태까지 나아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이처럼 사대부들의 시조는 심성 수양과 백성의 교화라는 두 가지 주제로 나타난다. 이는 사대부들이 재도지기(載道之器), 즉 문학을 도(道)를 싣는 수단으로 보는 효용론적 문학관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때 도(道)란 수기의 도와 치인의 도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강호가류의 시조는 수기의 도를, 오륜가류의 시조는 치인의 도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산수간(山水間) 바위 아래 떠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어리고 하얌*의 뜻에는 내 분(分)인가 하노라

<제1수>

보리밥 꽃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노니노라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릴* 줄이 있으라

<제2수>

누고셔 삼공(三公)*도곤 낫다 하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하랴
이제로 헤어든 소부 허유(巢父許由)*가 약뚫더라*
아마도 임천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없어라

<제4수>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分)으로 누었느냐
임금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갇고자 하여도 하올 일이 없어라

<제6수>

— 윤선도, 「만흥(漫興)」—

- * 하얌: 시골에 사는 견문이 좁고 어리석은 사람.
- * 부릴: 부러워할.
- * 삼공: 삼정승.
- * 만승: 천자(天子).
- * 소부, 허유: 요임금 때 세상을 등지고 살던 인물들.
- * 약뚫더라: 약았더라.

(다)

㉠ 님금과 백성 사이 하늘과 땅이로되
나의 설운 일을 다 알리고 하시거든
우린들 살진 미나리를 혼자 었디 머그리

<제2수>

아버이 사라신 제 섬길 일란 다하여라
디나간 후(後)면 애닭다 었디하리
㉡ 평생(平生)애 고터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제4수>

남으로 삼긴 중의 벗같이 유신(有信)하랴
㉢ 나의 윈* 일을 다 닐오려 하노매라
이 몸이 벗님이 아니면 사람 되미 쉬올가

<제10수>

㉣ 비록 못 니버도 남의 옷을 앓디 마라
비록 못 먹어도 남의 밥을 비디 마라
㉤ 한적곳* 때 시른* 후면 고터 씻기 어려우리

<제14수>

— 정철, 「훈민가(訓民歌)」—

- * 윈: 그른. 잘못된.
- * 한적곳: 한 번이라도.
- * 때 시른: 때가 묻은.

26.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대부들은 강호가류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이상적 조화를 지향했다.
- ② 사대부들은 강호가류보다 오륜가류의 창작에 더욱 힘쓰는 모습을 보였다.
- ③ 사대부들은 치인보다 수기를 더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며 시조를 창작했다.
- ④ 사대부들은 오륜가류와 달리 효용론적 문학관에 바탕을 두고 강호가류를 창작했다.
- ⑤ 사대부들은 사회와 당쟁으로 어지러운 정치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오륜가류를 창작했다.

27. [A]와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전남 해남에는 고산 윤선도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 그중에서도 금쇄동은 윤선도가 오랜 유배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 은거했던 공간이다. 그는 혼탁한 정치 현실을 떠나 그곳에서 십여 년간 자연을 즐기며 생활하였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군신의 도리를 잊지 않았다. 「만흥(漫興)」은 이러한 윤선도의 삶이 담겨 있는 작품이다.

- ① ‘떠집’은 유배 생활을 끝내고 오랫동안 은거하며 지냈던 삶의 공간으로 볼 수 있군.
- ② ‘보리밥 꽃나물’은 자연 속에서 검소하면서도 청빈한 삶을 추구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소재이군.
- ③ ‘부릴 줄이 있으랴’에는 어지러운 세상을 떠나 자연 속에서의 삶에 만족하는 태도가 잘 드러나 있군.
- ④ ‘비길 곳이 없어라’에는 당시의 정치 현실이 어느 때보다 혼탁하다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군.
- ⑤ ‘임금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에서는 자연에 머물면서도 군신의 도리를 잊지 않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군.

28. [B]를 바탕으로 ㉠ ~ ㉥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백성의 도리를 언급하기 위해 신분 차이를 밝히고 있다.
 - ② ㉡: 백성들에게 효를 실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③ ㉢: 인륜을 실천하는 모습을 벗의 행위로 보여주고 있다.
 - ④ ㉣: 일상생활에서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⑤ ㉤: 이상적 상황을 제시하며 치인의 도를 드러내고 있다.

29. (나)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의 <제1수>에는 ‘남들’과 ‘하암’을 대조하여 화자의 지향하는 바를 드러내었군.
 - ② (나)의 <제4수>에는 ‘소부 허유’와 관련된 고사를 활용해 화자가 추구하는 삶을 제시하였군.
 - ③ (다)의 <제2수>에는 ‘혼자 었디 머그리’라는 명령의 어조로 교화의 의도를 드러내었군.
 - ④ (다)의 <제4수>에는 ‘디나간 후면’이라고 상황을 가정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였군.
 - ⑤ (다)의 <제14수>에는 ‘비록 ~ 마라’를 반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였군.

[30~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도덕적이고 규범적이며 사람다운 삶을 강조하는 성리학을 받아들였다. 성리학은 우주의 근원과 질서, 그리고 인간의 심성과 질서를 ‘이(理)’와 ‘기(氣)’ 두 가지를 통해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과 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성리학을 ‘이기론’ 또는 ‘이기 철학’이라고도 부른다. 성리학에서 일반적으로 ‘이’는 만물에 ㉠ 내재하는 원리이고, ‘기’는 그 원리를 현실에 드러내 주는 방식과 구체적인 현실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는 언제나 한결같지만 ‘기’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존재하므로, 우주 만물의 원리는 그대로지만 형체는 다양하다. 이러한 ‘이’와 ‘기’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성리학자들이 현실을 해석하고 인식하는 자세가 달라진다.

‘기’를 중시했던 대표적인 성리학자로 서경덕을 들 수 있다. 그는 ‘기’를 우주 만물의 근원이라고 보았다. 서경덕에 의하면, 태초에 ‘기’가 음기와 양기가 되고, 음기와 양기가 모이고 흩어지고를 반복하면서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 불과 물 등의 만물이 만들어졌다. ‘기’는 어떤 외부의 원리나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여 만물을 생성하고 변하게 한다. 하지만 ‘이’는 ‘기’ 속에 있으면서 ‘기’가 작용하는 원리로 존재할 뿐 독립적으로 드러나거나 ㉡ 작용하지 않는다. 즉, ‘이’와 ‘기’는 하나이며, 세계에 드러나는 것은 ‘기’뿐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을 ‘기일원론(氣一元論)’이라 한다. 기일원론의 바탕에는, 현실 세계의 모습은 ‘기’의 움직임에 의한 것이므로, ‘기’가 다시 움직이면 현실도 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고가 깔려 있다.

‘이’를 중시했던 대표적인 성리학자는 이황이다. 이황은 서경덕의 논의를 단호하게 ㉢ 비판하며 ‘이’와 ‘기’는 하나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이’를 우주 만물의 근원이자 변하지 않는 절대적 가치이며 도덕 법칙이라고 보았다. ‘이’는 하늘의 뜻, 즉 천도(天道)이며, 만물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태어나는 본성이라고 여겼다. 따라서 인간이 ‘이’를 깨우치고 실행하면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회복하고, 인간 사회는 천도에 맞는 이상적이고 도덕적인 질서를 확립한다고 보았다. 현실 사회가 비도덕적이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인간이 본성을 잃어버리고 사악한 마음을 따르기 때문인데, 이러한 사악한 마음은 인간의 생체적 욕구, 욕망 등인 ‘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기’가 하나일 수는 없으며, 둘은 철저히 ㉣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황의 주장이다. 이러한 입장을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이라 한다. 이황은 ‘이’가 원리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발동*한다고 보았다. ‘이’가 발동하면 그에 따라 ‘기’도 작용하여 인간이나 사회는 도덕적인 모습이 되지만, ‘이’가 발동하지 않고 ‘기’만 작용하면 인간이나 사회는 비도덕적 모습이 될 수 있다. 이황은 인간이 ‘이’를 깨우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학문과 수양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현실의 문제 상황은 학문과 수양을 통해 ‘이’를 회복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이는 서경덕과 이황의 논의가 양극단을 달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와 ‘기’의 관계를 새롭게 ㉤ 규정하였다. 이이는 ‘이’를 모든 사물의 근원적 원리로, ‘기’를 그 원리를 담는 그릇으로 보았다. 둥근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의 모양이 둥글고 모난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의 모양이

모나 보이지만, 그 속에 담긴 물의 속성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처럼 ‘기’는 현실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이’는 달라지지 않는다. 물이 그릇에 담겨 있지만 물과 그릇이 다른 존재이듯이, ‘이’와 ‘기’도 한 몸처럼 붙어 있지만 ‘이’와 ‘기’로 각각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이에 따르면, ‘이’는 현실에 아무 작용을 하지 않고 ‘기’만 작용한다. 현실의 모습이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면, 이는 ‘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회복하기보다는 ‘기’로 나타난 현실의 모습 자체를 바꾸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이 이이의 주장이다. 이이가 조선 사회의 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개혁론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사고가 바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 발동(發動): 일어나 움직임.

3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철학적 용어의 현대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있다.
- ② 철학적 용어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비판하고 있다.
- ③ 문답의 형식을 통해 철학적 용어의 개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현실을 해석하는 철학적 용어가 등장한 배경을 소개하고 있다.
- ⑤ 철학적 용어의 관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나열하고 있다.

31. 윗글을 참고할 때, 아래의 ‘ㄱ’과 ‘ㄴ’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경덕	이황
‘이’와 ‘기’란 무엇인가?	‘이’란 만물에 내재하는 원리이고, ‘기’란 ‘이’를 현실에 드러내 주는 방식과 구체적인 현실의 모습이다.	
‘이’와 ‘기’의 성격은 어떠한가?	ㄱ	ㄴ

- ① [ㄱ: ‘이’와 ‘기’는 하나이다.
ㄴ: ‘이’와 ‘기’는 철저히 구분된다.
- ② [ㄱ: ‘이’는 ‘기’와 별도로 작용한다.
ㄴ: ‘이’는 ‘기’와 동시에 작용한다.
- ③ [ㄱ: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이’이다.
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기’이다.
- ④ [ㄱ: ‘기’는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
ㄴ: ‘이’는 ‘기’ 속에 포함되어 있다.
- ⑤ [ㄱ: 생체적 욕구와 욕망을 ‘기’라고 본다.
ㄴ: 생체적 욕구와 욕망을 ‘이’라고 본다.

3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이’가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양반이 되어야 군포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밤낮으로 양반이 되는 길을 모색한다. 고을 호적부에 기록되면 양반이 되고, 거짓 족보를 만들면 양반이 되고, 고향을 떠나 먼 곳으로 이사하면 양반이 되고, 두건을 쓰고 과거 시험장에 드나들면 양반이 된다. 몰래 불어나고, 암암리에 늘어나고, 해마다 증가하고, 달마다 불어나 장차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양반이 되고 말 것이다.

— 정약용, 「신포의(身布議)」 —

- ① 양반이 되려는 백성들의 문제는 본성을 잃어버려서 생긴 문제이므로, 학문과 수양을 통해 본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 ② 편법으로 쉽게 양반이 될 수 있는 현실이 백성을 이렇게 만든 것이므로, 이러한 현실의 모습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 ③ 백성들의 행동은 현실에 내재하는 원리가 잘못되어 나타난 현상이므로, 현실의 문제를 근본부터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원리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 ④ 양반이 되려는 백성들의 모습은 음양의 작용에 의해 생겨난 것이므로, 인위적인 노력보다는 음양의 또 다른 작용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 ⑤ 백성들이 양반이 되고자 하는 것은 군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잘못된 욕구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러한 욕구를 따르지 않도록 천도에 맞는 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33.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내부적으로 미리 정함.
- ② ㉡: 어떤 현상을 일으키거나 영향을 미침.
- ③ ㉢: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을 지적함.
- ④ ㉣: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갈라 나눔.
- ⑤ ㉤: 내용이나 성격 따위를 밝혀 정함.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차시 양경이 정공의 딸이 죽은 줄 알았더니 천만 의외에 그 딸이 태자비가 됨을 보고 심중에 분함을 품고 생각하되,
‘요망한 정녀가 죽었다고 하고 나를 속였으니 어찌 분하지 아니리오. 태자비라는 위세로 당당히 우리 가문을 해할 것이니, 내 먼저 계교를 도모하리라.’
하고, 즉시 양귀비 궁에 들어가 남매가 비밀스럽게 상의하여 계교를 꾸미더라. 일일은 양귀비가 태자비 침전에 이르니, 정비 맞아 예를 갖추매, 양귀비 가로되,
“황상이 태자비의 바느질 솜씨를 보고자 하사 첩으로 하여금 황룡단(黃龍緞) 한 필을 정비에게 주어 삼 일 내로 용포(龍袍)를 지어 올리라 하시더이다.”
하고 축금단* 한 필을 내어놓으니, 정비가 허리를 굽혀 황상의 명을 받든 후 주과를 내어 양귀비를 대접하더라. 양귀비 늦도록 앉았다가 돌아와 즉시 자기 딸 비연 공주를 불러 계교를 가르치니, 비연이 순순히 응낙하고 즉시 장락전에 이르러 낮 문안을 마치고 황상의 곁에 있다가 문득 양귀비더러 왈,
“소저가 정비께 갔더니 정비께서 용포를 짓더이다.”
양귀비 짐짓 꾸짖어 왈,
㉠ “너 같은 어린 애가 무엇을 아노라 잡담을 하나뇨?”
황상이 웃으시며 왈,
“비연아! 네 무슨 말을 하다가 어머니에게 책언(責言)을 듣나뇨? 짐에게 자세히 말하라.”
비연 공주가 황상 앞에 엎드리며 왈,
“소저가 태자궁에 갔삽더니, 정비께서 용포를 지으니, 솜씨가 절묘하더이다.”
황상이 다시 물어 왈, “네 정녕히 보았느냐?”
비연이 고하여 왈,
“황룡단에 구룡(九龍)을 수놓으니 용포가 아니면 무엇이리까?”
황상이 속으로 깊이 생각하시되,
‘태자에게 용포가 당치 않거늘 용포를 지어 무엇에 쓰려 하는고? 반드시 수상한 뜻이 있음이로다.’
하시고 좌우를 명하여 태자를 부르라 하시니 양귀비 왈,
“이 일이 비록 의심스러우나, 어린 애의 모호한 말을 어이 믿고 궁중을 요란케 하시리까? 앞으로 서서히 보아 처치하소서. 태자의 천성이 어질고 효성 또한 깊더니, 최근 정비를 취한 후로 행동이 조금 변하오니, 폐하는 노여움을 참으시고 후일을 보소서.”
황상이 양귀비의 말을 아름답게 여기사 이후로는 양귀비를 더욱 총애하시고, 태자와 정비를 보시면 안색에 노기 어리시니, 태자와 정비 황궁함을 이기지 못하나 그 연유를 모르고 마침내 용포를 지어 양귀비께 드리니, 양귀비 이를 황상께 드리며 왈,
㉡ “폐하께서 정비를 보시고 좋지 않은 기색을 보이시니, 정비는 본디 총명한 인물이라. 그 기미를 짐작하고 짐짓 용포를 지어 첩에게 보내며 황상께 드리라 하니, 그 허물이 신첩에게 있는지라. 도리어 황궁하여이다.”
황상이 듣기를 마치고 크게 노하사 즉시 용포를 불태워 버리시니, 정비 이 말을 듣고 근심하더라.

[중략 부분 줄거리] 양귀비는 자기의 아들이 독질로 사망하자 정비가 독살한 것으로 꾸민다. 정비를 아끼던 황후는 사약을 받을 위기에 처

한 정비를 구해주고 멀리 떠나도록 한다. 이후 정비는 아버지 정공과 죽마고우인 이 시랑을 만나 그의 집에 숨어 지낸다.

차시 정비가 이 시랑 집에서 밤낮으로 무예를 연습하며 황성 소식을 탐지하더니, 문득 비복이 들어와 고하기를,
〔“황성 소식을 들으니, 육주(六州)의 자사(刺史)가 다 반란을 [A] 일으켜 경성을 범하오되, 천자와 태자가 적진에 싸이어 양식 [B] 이 끊어진 지 칠 일이나 되었다 하더이다.”

정비 크게 놀라며 왈,
“이는 필경 양경의 소행이라. 어찌 일시라도 지체하리오. 급히 달려가 천자와 동궁을 구하고 도적을 평정하리라.”
하고 갑옷을 정제하고 말에 오르니, 시랑이 왈,
“노신이 낭랑*을 모셔 가 황상과 태자 전하를 뵙고자 하옵나니, 함께 감이 어떠하리까?”

정비 말리며 왈,
㉢ “공의 말씀이 당연하나, 첩의 탄 말이 천리마(千里馬)라. 한 번 채를 던지면 바람이 풍우(風雨)같아 만리강산(萬里江山)을 눈앞에 지내나니, 공의 노력(老力)으로 어찌 나의 뒤를 좇으리오. 첩이 마땅히 천자를 뵙는 날에는 공의 충심을 고하리라.”

하고 천사보검(天賜寶劍)을 비껴들고 말에 올라 채를 들어 한 번 치니, 그 말이 소리를 벽력같이 지르고 급히 달려 하룻밤 만에 황성 가까이 이르러 바라보니, 평원광야에 수만의 철갑을 입은 군사들이 천자와 태자를 에워쌌으니, 살기등등(殺氣騰騰)하여 급함이 경각(頃刻)에 있는지라. 정비 크게 노하여 소리 질러 왈,

㉣ “너희는 어떤 도적이기에 감히 천자를 범하나뇨? 한칼로 죽여 씨를 없이 하리라.”

하니 적진 중에서 한 장수가 나와 크게 웃으며 왈,
“천자가 덕이 없어 만민이 도탄에 빠지매, 우리가 천명(天命)을 받아 의병을 이루어 어리석은 임금의 없애고 만민을 구하려 하거늘, 너는 어찌 하늘의 때를 모르고 덤비느냐?”

정비 크게 노하여 창을 들어 궁중을 찌르며 왈,
“너희 양씨 가문이 대대로 국록을 먹고, 너희 누이 총애를 받으니 은혜가 망극하거늘, 도리어 역당(逆黨)을 모아들여 임금을 해코자 하니, 하늘이 어이 무심하리오. 자고로 임금이 있는 후에 백성이 평안하니, 군신지의(君臣之義)는 삼강(三綱)의 으뜸이라. 너희가 오류를 모르니, 일러 무엇하리오.”

하고 칼을 들어 급히 치니, 양춘이 크게 노하여 창을 들어 맞아 싸워 몇 합(合)을 겨루지 않았는데, 정비 칼을 들어 양춘의 말 다리를 찌르니 양춘이 말에서 떨어지더라. 정비 칼을 날려 그 머리를 베어 꿰어 들고 적진 앞을 가로지르며 왈,

“너희 중에 나를 당할 자가 있거든 빨리 나와 승부를 결하라.”
서주(徐州) 자사 양의태, 양춘의 죽음을 보고 성을 내며 왈,

㉤ “구상유취(口尙乳臭)한 놈이 감히 우리 대장을 해하나뇨?”

하고 달려드니, 정비 맞아 몇 합이 지나지 않아 칼을 날려 양의태의 머리를 베어 말 아래 내리치고, 바로 적진에 달려들어 좌충우돌하며 적군의 머리를 풀 베듯 하니, 적진 장졸이 크게 놀라 넋을 잃어 감히 가까이 올 자가 없는지라.

－ 작자 미상, 「정비전(鄭妃傳)」－

* 축금단 : 매우 귀한 비단.
* 낭랑 : 왕비나 귀족의 아내를 높여 부르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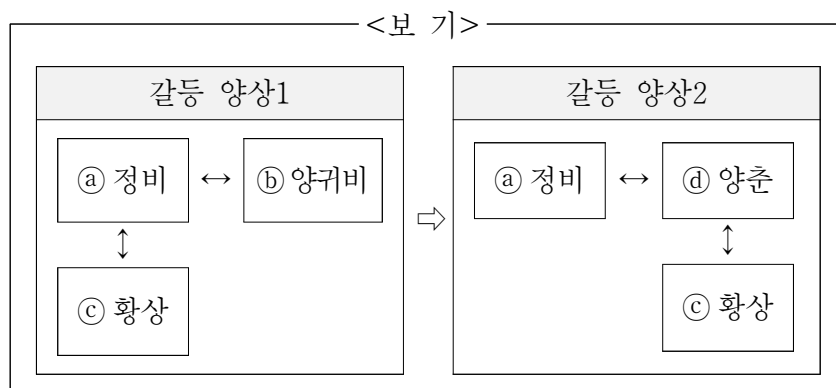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양경은 정공이 죽은 것으로 생각했다.
- ② 태자는 평소 황상의 행동에 반감을 갖고 있었다.
- ③ 이 시량은 정비가 태자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 ④ 정비는 비범한 능력으로 황상의 위기를 예견하였다.
- ⑤ 비연은 보지 않은 사실을 본 것처럼 황상에게 고했다.

3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거짓으로 비연을 꾸짖는 체하여 황상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 ② ㉡: 정비의 의도를 왜곡하여 전달함으로써 황상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 ③ ㉢: 이 시량과 동행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혀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
- ④ ㉣: 상대의 능력에 대한 놀라움을 숨기고자 상대에게 호통을 치고 있다.
- ⑤ ㉤: 정비의 행동에 분노하며 자신이 충분히 대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36. <보기>는 윗글에 나타난 인물들의 갈등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갈등 양상1’은 ㉠의 신분 변화로 인해 ㉡의 가문이 느낀 위기감에서 비롯된다.
- ② ‘갈등 양상1’에서 ㉢은 ㉠의 행동을 의심하여 그 진위를 직접 확인한다.
- ③ ‘갈등 양상2’는 ㉣이 ㉢의 권위를 빼앗으려는 데에서 비롯된다.
- ④ ‘갈등 양상2’에서 ㉣은 ㉠이 천명을 막고 있음을 내세우면서 대립한다.
- ⑤ ‘갈등 양상2’에서 ㉠은 유교적 명분에 입각하여 ㉣에게 죄가 있음을 질타한다.

37. [A]의 ‘천자와 태자’의 처지에 어울리는 말로 적절한 것은?

- ① 결초보은(結草報恩) ② 동상이몽(同床異夢)
- ③ 사면초가(四面楚歌) ④ 전화위복(轉禍爲福)
- ⑤ 호가호위(狐假虎威)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 나라의 경제 활동 또는 경제적 성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생산과 관련된 여러 지표들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지표들은 한 국가의 경제 규모뿐만 아니라 경제의 특성, 장·단기적 발전 가능성 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비교 가능한 지표들 중 한 국가의 생산량을 잘 보여주는 것이 국내총생산, 국내순생산, 국민총생산이다.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재화 및 용역의 금전적 가치를 합한 것으로, 기간은 보통 1년으로 한다. 국내총생산의 ‘생산(P, product)’이란 생산량의 ‘부가 가치’의 총합을 말한다. 부가 가치란 각 생산자의 최종 생산량에서 중간에 쓰인 투입량을 뺀 가치이다. 빵을 파는 제과점의 1년 매출액이 3,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때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밀가루, 달걀 등 각종 재료와 연료, 전기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중간 투입물을 사는 데에 2,000만 원이 들었다면 제과점은 결국 1,000만 원의 가치만 부가적으로 생산한 것이다. [A] 중간 투입물의 가치를 빼지 않고 각 생산자의 최종 생산량을 더하면 어떤 부분은 중복 계산되어 실제 생산량이 크게 부풀려진다. 제과점 주인이 방앗간에서 생산한 밀가루를 샀으므로 제과점과 방앗간의 생산량을 그대로 더하면 밀가루 가격이 두 번 계산되는 셈이다. 또 방앗간 주인이 농부에게서 밀을 샀으므로 제과점, 방앗간의 생산량에 농부의 생산량까지 보태면 밀의 가격은 세 번 계산된다. 그래서 부가된 가치만을 더해야 제대로 된 생산량이 나오는 것이다.

국내총생산의 ‘총(G, gross)’은 무슨 뜻일까? 생산량을 계산할 때,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본재가 소비되면서 하락한 가치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시 제과점을 예로 들면 오븐, 반죽기 등이 자본재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기계는 밀가루와 달리 생산물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지만 계속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어 경제적 가치가 ㉠떨어진다. 이를 가리켜 감가상각이라 한다. 국내총생산에서 자본재의 감가상각을 뺀 것을 ‘국내순생산(NDP, net domestic product)’이라고 부른다. 국내순생산은 생산에 필요한 중간 투입물과 감가상각을 모두 빼고 계산한 수치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경제적 성과를 국내총생산보다 더 정확하게 알려준다. 그러나 보통 국내순생산보다 국내총생산을 더 많이 쓰는 이유는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내총생산의 ‘국내(D, domestic)’는 무슨 뜻일까? 여기서 국내는 한 나라의 국경 안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 나라의 국경 안에 있는 생산자가 그 나라의 국민이나 기업이 아닐 수도 있다. 뒤집어 생각하면 모든 생산자가 자국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도 된다. 외국에 공장을 지어 생산하는 기업도 많고, 외국에서 일자리를 얻어 일하는 사람도 많다.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나오는 생산량이 아니라, 한 나라의 국민과 그 나라의 기업이 생산한 생산량 전체는 ‘국민총생산(GNP, gross national product)’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외국 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자국 기업은 외국에 많이 진출하지 않은 캐나다, 브라질, 인도의 경우는 국내총생산이 국민총생산보다 더 크다. 반면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 기업보다 외국에 진출한 자국 기업이 더 많은 스웨덴, 스위스는 국민총생

산이 국내총생산보다 더 크다.

보통 국내총생산(GDP)이 국민총생산(GNP)보다 더 자주 쓰인다. 단기적으로 볼 때 한 나라 안의 생산 활동 수준을 더 정확히 알려 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나라의 경제가 갖는 장기적 저력을 측정하기에는 국민총생산이 더 효과적이다. 자국민과 자국 기업의 생산량이 그 나라의 지속적인 생산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나라가 이웃 나라보다 국민총생산이나 국내총생산이 더 크다고 할 때, 단순히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생산적인지를 알고 싶다면 국내총생산이나 국민총생산을 1인당 생산량으로 환산하여 살펴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런데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생산은 일부의 생산량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거나 돈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재화나 용역은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영세한 자급농이나 주부의 가사 노동이 그 사례에 해당한다. 개발도상국의 영세한 자급농은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 대부분을 자체 소비하고 시장에 내다팔지 않아서 그들의 농산물은 총생산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주부의 가사 노동은 시장 밖에서 생산될 뿐만 아니라 돈으로 계산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국내총생산이나 국민총생산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도 반영하여 경제 활동을 살펴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8. 윗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은?

- ① ‘감가상각’을 산출하는 다양한 방법
- ② ‘국민 1인당 생산량’을 살펴야 하는 이유
- ③ ‘국내총생산(GDP)’에서 ‘생산’의 구체적 의미
- ④ ‘국민총생산(GNP)’과 ‘국내총생산(GDP)’의 한계
- ⑤ ‘국민총생산(GNP)’과 ‘국내총생산(GDP)’의 차이점

39.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가’ 국가는 빵 한 가지만을 최종 생산물로 하는 나라로, 각 생산자의 최종 생산량을 매출액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생산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생산자:	농부 (밀)	→ 방앗간 주인 (밀가루)	→ 제과점 주인 (빵)
매출액:	7억 원	12억 원	20억 원

※ 단, 농부는 중간 투입물 없이 밀을 생산하고, 빵을 만드는데 필요한 중간 투입물은 밀가루 하나라고 가정한다.

	부가 가치를 가장 많이 창출한 생산자	국내총생산
①	농부	20억 원
②	방앗간 주인	39억 원
③	방앗간 주인	13억 원
④	제과점 주인	20억 원
⑤	제과점 주인	39억 원

40. 문맥을 고려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생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 ② 생산량의 가치는 시장 가격으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 ③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고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 ④ 생산물이 거래되는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 ⑤ 생산량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4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지표 산출 기간: 1년>

	A국	B국
국내총생산(GDP)	180조 원	210조 원
국내순생산(NDP)	170조 원	180조 원
국민총생산(GNP)	210조 원	180조 원

※ 단, A국과 B국의 인구 및 국경 내 자국민과 자국 기업의 생산량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 ① 자본재의 감가상각은 B국이 더 크다.
- ② 국민총생산의 1인당 생산량은 A국이 더 많다.
- ③ 한 나라 국경 안의 부가 가치 총합은 B국이 더 크다.
- ④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저력이 더 높게 평가되는 국가는 B국이다.
- ⑤ 외국에 사는 자국민과 외국에 있는 자국 기업의 생산량이 더 많은 국가는 A국이다.

42.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는 타락의 길로 떨어졌다.
- ② 연일 주가가 떨어져서 큰일이다.
- ③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 고생을 하였다.
- ④ 식당과 본관 건물은 서로 떨어져 있다.
- ⑤ 드디어 우리에게도 출동 명령이 떨어졌다.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마다 단풍만 저리 고우면 뭐헌다요
 뭐헌다요. 산 아래
 물빛만 저리 고우면 뭐헌다요
 산 너머, 저 산 너머로
 산그늘도 다 도망가불고
 산 아래 집 뒤편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도
 당신이 안 오는데 뭘 헛짓이냐
 저런 것들이 다 뭘 소용이냐
 뭘 소용이냐요. 어둔 산머리
 초생달만 그대 얼굴같이 걸리면 뭐헌다요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에
 허연 서리만 끼어 가고
 저 달 금방 저물면
 세상 길 다 막혀 막막한 어둠 천지일 턴디
 병신같이, 바보 천치같이
 이 가을 다 가도록
 서리발에 하얀 들국으로 피어 있으면
 뭐헌다요, 뭘 소용이냐

— 김용택, 「들국」 —

(나)

사람이 벽(癖)이 없으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이다. 벽이란 글자는 질병과 치우침으로 이루어져 ‘편벽된 병을 앓는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벽이 편벽된 병을 뜻하지만 고독하게 새로운 것을 개척하고 전문 기예를 익히는 것은 오직 벽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하다.

김 군이 화원(花園)을 만들었다. 김 군은 ㉠꽃을 주시한 채 하루 종일 눈 한번 꿈쩍하지 않는다. 꽃 아래에 자리를 마련하여 누운 채 꿈쩍도 않고 손님이 와도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다.

그런 김 군을 보고, 미친놈 아니면 멍청이라고 생각하여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자가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그를 비웃는 웃음소리가 미쳐 끝나기도 전에 그 웃음소리는 공허한 메아리만 남기고 생기가 싹 가시게 되리라.

김 군은 만물을 마음의 스승으로 삼고 있다. 김 군의 기예는 천고(千古)의 누구와 비교해도 훌륭하다. ㉡『백화보(百花譜)*』를 그린 그는 ‘꽃의 역사’에 공헌한 공신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며, ‘향기의 나라’에서 제사를 올리는 위인의 하나가 될 것이다. 벽의 공훈이 참으로 거짓이 아니다!

아아! 별별 떨고 게으름이나 피우면서 천하의 대사를 그르치는 위인들은 편벽된 병이 없음을 빼기고 있다. 그런 자들이 이 그림을 본다면 깜짝 놀랄 것이다.

을사년(1785) 한여름에 초비당(苕蓓堂) 주인이 글을 쓴다.

— 박제가, 「백화보서(百花譜序)」 —

* 백화보: 피고 지는 다양한 꽃과 잎사귀의 모습 등을 그려놓은 책.

4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시상이 전개됨에 따라 어조가 변화하고 있다.
- ② (나)에는 대상의 행적을 제시하며 예찬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③ (가)에는 (나)에서와 달리 현실을 초월하려는 강한 의지가 드러나 있다.
- ④ (나)에는 (가)에서와 달리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색채어를 사용하여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44.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시는 그리운 임에 대한 애뜻함과 이별의 상황에 대한 막막함을 함께 노래한 작품이다. 화자는 임과 이별한 자신의 처지를 늦가을의 아름다운 풍경과 대비하여 강조한다. 동시에 특정 자연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 자신의 정서나 처지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한다.

- ① ‘단풍’과 ‘물빛’ 등의 자연물과 대비하며 화자의 처지를 부각한다고 볼 수 있군.
- ② ‘하얀 손짓’은 ‘당신’을 향한 화자의 애뜻한 정서를 자연물의 움직임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③ ‘초생달’은 ‘그대 얼굴’을 떠올리며 이별의 상황에 막막해 하는 화자와 동일시된다고 볼 수 있군.
- ④ ‘막막한 어둠’은 ‘마른 지푸라기’나 ‘허연 서리’가 환기하는 화자의 정서를 심화한다고 볼 수 있군.
- ⑤ ‘서리발에 하얀 들국’을 통해 부정적 상황 속에 놓인 화자의 처지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45. (나)의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같은 벽의 공훈을 얻기까지 ㉡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가 필요하였다.
- ② ㉠을 아름답게 가꾸는 행위를 통해 ㉡에 대한 편벽된 병을 극복하게 되었다.
- ③ ㉠에 대한 편벽된 병이 ㉡과 같은 벽의 공훈을 이루어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 ④ ㉠에 남다른 의미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하여 ㉡에 대한 편벽된 병이 작용하였다.
- ⑤ ㉠을 탐구하는 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비웃음이 ㉡과 같은 벽의 공훈을 이루도록 이끌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